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이야기 할배, 할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산에 숨겨진 특별한 장소로 떠나볼래요?

원도심스토리투어는 원도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부산의 먹거리, 볼거리, 쇼핑을 연계하여 만든 관광코스입니다.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혀가는 이야기를 따라 걷고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바구길 걷다]

부산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초량이바구길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코스다. 우선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인 옛 백제병원과 부산 최초의 물류 창고인 남선창고 터를 돌아본다. 옛 백제병원은 폐업 후 중국집, 음식점 등으로 활용되다가 지금은 카페로 변신했다. 업사이클링 전문 디자인 회사 브라운핸즈가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빈티지한 카페 겸 문화 공간으로 꾸몄다.

부산 최초의 교회인 초량교회를 거쳐 168계단 앞에 선다. 가파른 168개 계단을 마주하니 '헉' 소리가 절로 난다. 이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을 서민의 고단함이 그려진다. 다행히 올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8인승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68계단을 오르다 보면 김민부전망대를 만난다. 이 지역 출신 천재 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뜻에서 조성된 곳으로, 부산항과 원도심이 어우러진 전망이 펼쳐진다. 잠시 쉬며 거친 숨을 고른다.



[흰여울마을 만나다]

'흰여울마을 만나다' 코스는 거친 바다를 끼고 걷는 길이다. 절영해안산책로 입구에 서니 바다 기운이 진하게 밀려온다. 바다를 옆에 끼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책로를 걸어본다. 절영해안산책로에서 흰여울문화마을 쪽으로 건다 보면 해녀촌 탈의실이 있다. 날이 좋으면 할머니들이 물질한 해산물로 즉석 좌판을 연다. 바다를 내다보며 해녀 할머니가 손질해준 해산물 한 점을 입에 쏙 넣는다. 이런 순간이 여행의 백미 아니겠는가.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유명한 흰여울문화마을은 영도 절벽에 있어 독특한 풍광을 자아낸다. 바닷가 절벽에 좁은 골목을 따라 집이 웅기종기 들어선 모습이 이국적이다.



투어일시: 11월 2일 금요일 **1회차 12시(이바구길 건다)** 또는 **2회차 16시(흰여울마을 만나다)** 택1

모집대상: 부산지역 내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가능)

모집기간: 2018.10.22(월)~10.30(화)

참가인원: 각 회차 당 20명 내외(선착순)

지원조건: 투어 후 7일 이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체험후기 게시

투어비용: **무료**(식비, 기념품 등 제공)

신청방법: <http://bit.ly/원도심스토리투어>

최종발표: 2018년 10월 31(수)까지 유/무선 개별통보

문의처: 부산관광공사 국내관광마케팅팀(051-780-2197)

***** 후기 작성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 증정(20,000원 상당-상품권 5매)**

12시 코스(이바구길)	16시 코스(흰여울마을)
11:40집결장소(부산외국어 서비스 센터) 모임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스토리 투어 및 활동 15:00~ 자유 귀가	15:40 집결장소(흰여울문화마을 운영지원센터 2층) 모임 16:00~18:00 스토리 투어 및 활동 18:00~19:00 저녁식사 19:00~ 자유 귀가